

겸손: 구원의 문

디모데후서 4:16-18

오늘 설교는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겸손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보통 겸손한 사람을 가리킬 때 거만하지 않는 사람, 잘난체하지 않는 사람,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 실수를 인정하고, 또 조용히 섬기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투를 보고 “아, 저 사람은 겸손하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기도하러 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십일조도 합니다.”

반면,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도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눅 18:14)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리새인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 경건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과 십일조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읽기, 예배 참석, 교회 봉사, 기도생활, 다 잘하는 **모범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치명적 문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 행위가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자기 영광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낫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이것이 교만의 소리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도 이런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 복 주셔야죠.” “저 사람보단 제가 낫지요.”

심지어 **겸손한 척** 하면서 사람의 인정과 박수를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짜 겸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겸손하다고 여기는 어느 수도승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긴 사람입니다. 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못난 죄인입니다. **제가 바로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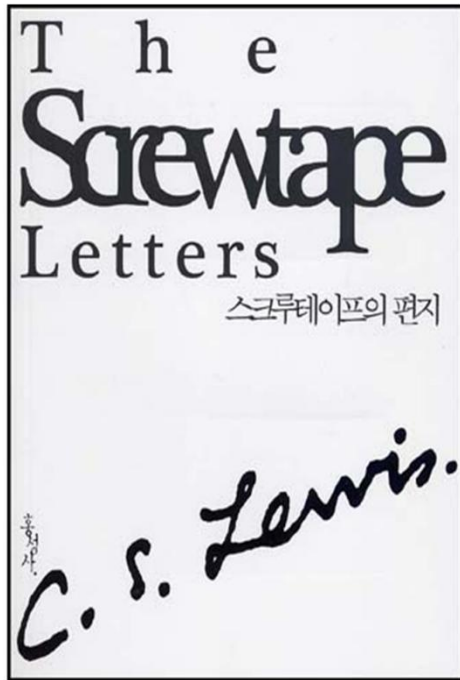
그 말은 들은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 그런줄 알았어요. 정확하게 아시네요.”

그 말은 들은 순간, 수도승의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더니 소리를 치며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렇게까지 말합니까?!”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대단한 믿음의 일들을 행하고, 어떤 겸손한 일을 하거나 겸손한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겸손과는 전혀 상관없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는 겁니다. 겸손한 척 하면서 결국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가짜 겸손에 불과하지요.



20 세기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 C.S. 루이스가 쓴 대표작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삼촌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웬우드에게 쓴 편지로 구성된 책입니다. 둘 다 악마입니다. 경험이 많은 삼촌 악마가 이제 막 악마 생활을 시작한 풋내기 악마 조카에게 어떻게하면 훌륭한 악마가 될 수 있는지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최종 목적이지요. 책에는 총 31 개의 편지가 담겨있는데 14 번째 편지는 겸손에 대한 내용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웬우드에게, 지난번 네 보고를 받고 제일 걱정되는 건, 환자(사람)가 처음 회심했을 때처럼 자신만만한 결심들을 남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듣자 하니 앞으로는 선한 일만 하겠다는 약속도 평평하지 않았더구나. 심지어 한 번 받은 은혜가 평생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매일 매시간 닥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매일 매순간에 해당하는 은혜만 바란다니! 상황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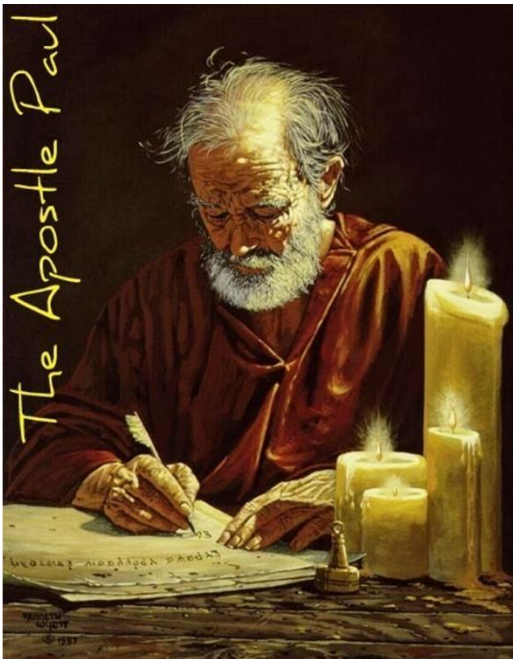
지금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야, 네 환자는 겸손해졌다. 미덕이란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의식하는 순간에 위력이 떨어지는 법인데, 겸손의 경우는 특히 더 그렇지.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진 순간을 잘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 놓거라. 그러면 거의 그 즉시 교만-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들게야.

혹시라도 환자가 위험을 눈치채고 이 새로운 형태의 교만을 다잡으려 들거든, 이번엔 그런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게 만들라구! ... 너는 환자가 겸손의 진정한 목적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단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게 아니라, ... 내 재능의 가치를 내가 실제로 믿고 있는 수준보다 낮게 보려고 애쓰는 것'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꼭꼭 박아주거라. ... 이 방법을 통해 수천명에 이르는 인간들이 '겸손이란 아름다운 여자가 스스로 못난이라고 믿으려고 애쓰며, 명석한 남자가 스스로 멍청이라고 믿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C.S. 루이스는 겸손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잊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다.”

나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그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에서는 죽음이 임박한 사도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이 편지를 주후 67년 가을 경에 썼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 이유로는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 전통에 따르면 바울이 네로 황제가 자살하기 전에 사형을 당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네로가 죽은 것이 주후 68년 여름이라고 하지요. 두번째로는, 편지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편지가 겨울 전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둘을 종합해 볼 때, 아마도 바울은 차가운 감옥에서 주후 67년 가을 경에 이 편지를 썼을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편지가 바울이 남긴 마지막 편지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디모데후서는 그의 유언과 같은 편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의 편지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 16 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 로마 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재판에 앞서 예심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증인들은 피고인의 무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에는 그의 예심에 아무런 증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혼자였습니다. 누군가는 나타날 법한데, 누군가는 법정에 나와서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해줄 법도 한데, 아무도 그의 곁에 서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시 바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볼까요? 바울은 잘 알려진 대로 그가 회심한 이래로,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인물입니다. 복음을 위해 그가 받은 고난과 고통은 정말 엄청나지요.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들에 대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많은 교회도 세우고, 이방인들의 구원에 건인차 역할을 했지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또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아마 셀수 없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은 다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왜 한 사람도 나타나주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법정에서 혼자 덩그러니 있을 때 그의 가슴을 후벼파는 아픔이 있지는 않았을까 상상하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상상일까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다가 편지에다가 그의 아쉬움 혹은 쓰라린 감정을 조금이라도 표현했을 법도 한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왜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시선이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분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모두는 나를 떠났지만...)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어가 누구지요? 주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니, 당신들은 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께서...” 또 “주님께 영광이...”

바울은 분명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지요? 왜냐면 C.S. 루이스가 정의했듯이, 자기 자신을 잊고 하나님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고관들과 나를 진정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그 분 안에서 의미와 힘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갈 2:20)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어가 되신다” - 이 뜻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겸손입니다.



겸손의 절정은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신 분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한 삶을 사신 분이 아니지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고자 자기를 온전히 비운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 뜻대로** 한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내 가르침은 **아버지의 것**이다.”

결국 예수님의 겸손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고, 그런 그분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빌 2 장). 것처럼 참된 겸손은 내가 없어지고, 결국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주신 것이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겸손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셨고, 또 그분의 겸손함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교회가 여전히 **덜 죽었고, 덜 겸손합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진짜 문제:
덜 겸손한 교회...
덜 죽은 신자...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열심히 섬겨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 덜 죽은 모습, 덜 겸손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낮추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역하게 하소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말 겸손하십니까? 정말 죽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사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다.”

저는 여기에 한마디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교회가 겸손해지는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가 사는 것입니다.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 죽음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그분의 높고 놀라운 뜻이 펼쳐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날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오늘 날 세상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리처드 백스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기독교인이 가지는 장신구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또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 겸손하니까?

앤드류 머레이가 말합니다.

“죄가 **교만**을 통해 들어왔다면, 구원은 **겸손**을 통해 들어온다.” 맞습니다. **교만이 죄의 문이었고, 겸손은 바로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그 겸손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단지 나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내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박는 것입니다. (눅 9:23-24)

그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내가 죽을수록, 우리 교회가 더 겸손해질수록 세상은 더욱 예수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나요? 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낸다는 것 말입니다.
말은 좋지만, 도저히 못할꺼 같은데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 가운데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나요? 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낸다는것
말입니다. 말은 좋지만, 도저히
못할꺼 같은데요?”

누가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면 대뜸 화부터 나는게 저예요.

맞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겸손할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 19:26)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해지는데 있어서 제일 첫번째 되는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라고 내 교만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한 순간도 제 안에 주인되지 않으면 저는 또 넘어지고 맙니다. 저는 정말로 불쌍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기를 부인해야, 내 가슴을 칠 줄 알아야, 내 완악한 심령에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두 손 들어야, 비로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소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겸손해 지는 일)을 우리가 해야하는 것이면 얼마나 소망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은혜를 쏟아붓는다 해도 자연이 자연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없애지 못합니다. 주님께 찬양을 올립시다! 이미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자아도 죽을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 속에 우리도 영원히 그분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음 주일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워싱턴 DC 에 가서 노숙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노숙자들을 섬기는 우리 마음에 행여나 교만이 없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선한 일도 하는거야. 남들은 노숙자들을 외면할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어.

저 교회보다 우리가 나아. 이런 마음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서 나같은 죄인을 풀어주시고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 나누고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족한 죄인이, 주님의 마음이 닿는 그곳에 조금이나마 섬길수 있도록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겸손으로 인해 남들이 살아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며, 어두운 이 세상이 밝아지고, 주님의 영광만이 높아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대체하는 것.

“내가 죽고, 주가 살고”

그래서, 겸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가 사는 것입니다.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갈 2:20)

존 웨슬리의 권면을 마음에 새깁시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무언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온전히 비우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으로 온전히
채울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무언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온전히 비우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으로 온전히 채울수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



마무리 기도

주 예수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바울에게 임하셨던 성령님 저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내가 아니라, 남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앙망하는 우리 심령 속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소서.

나를 온전히 비우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우셔서, 내가 아니라 주님만 온전하게 드러나는 삶,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 살게 하소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도 자랑이 아니라 겸손과 감사로 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리는 스미스채플, 그리고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질문

1. 내 신앙 행위 중 **하나님보다 나를 드러내는** 것은 무엇인가요? (눅 18:10-14)
2. “**주께서 내 곁에 서셔서 힘 주셨다**”(딤후 4:17)는 말이 이번 주 **내 상황**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나요?
3. 내가 최근에 가장 흔들린 **칭찬/비판**은 무엇이었나요? 그 반응 속에서 나는 **누구의 인정을** 더 의식했나요?
4. 지금 십자가에 못박아야 할 ‘나’의 (자존심/계획/말습관/소유 등)은 무엇인가요? 한 가지를 정하고 실천을 적어 보세요.
5. DC 섬김 사역에서 스며들 수 있는 **숨은 교만**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어떻게 지킬지**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